

치 사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목판본 팔만대장경은 국보 제32호로 유네스코 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불교의 핵심사상이 담겨 있는 법보(法寶)이면서, 인류를 위한 소중한 정신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천년의 세월을 넘은 방대한 성전이 석판본으로 재탄생 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부디, 현시대의 인류와 문화를 아우르는 지혜의 불사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불사의 취지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국태민안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깊은 원력이 담겨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국운이 융창해지고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불자들과 국민들의 가슴 속에 두루 퍼져 온 누리가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현시대와 사회는 자유와 평화, 정의와 평등, 번영과 분배의 실천에 커다란 관심과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지혜와 자비를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바꾸자면 자유, 평등, 평화,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석판본 봉안 대법회를 계기로 참석자 모두가 이 시대와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인류의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 즉, 자유, 평등, 평화, 정의의 가치로 해결하기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려대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고려대장경 제작과 보존을 위해 땀 흘린 선조들의 노고를 마음속 깊이 기리는 숭고한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현재에도 생생하게 실현되는 것에 크게 감동하고 후손에게도 길이 보전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려대장경이라는 문화유산이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의 원하는 바가 불보살님의 가호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대장경 조성의 공덕이 불자와 국민에게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불사를 오랫동안 법력으로 증명해주신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대종사께 경의를 드리며, 진력으로 헌신해 온 신상길 이사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수행정진의 도량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6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